

공공도서관 '브나로드운동'의 한 모범

책문화의 최일선 심부름꾼 인천중앙도서관 이동도서관

'서울공화국'으로 불릴만큼 고도로 중앙집중적인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한 도시가 중앙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도시가 나름의 자족적 성격을 갖추는 데 대단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에 걸친 서울의 흡인력이 워낙 거세다 보니 서울과는 어느정도 격절된 상태에서의 홀로서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쉽다.

인구 150만의 대도시 인천도 그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서울에 인접해 있어 얻는 혜택 못지 않게, 바로 그래서 받는 불이익 또한 매우 크다. 지호시간의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지역사회로서의 인천의 성장가능성은 애초부터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판문화, 혹은 책의 문화만 하더라도, 서울과 구별되는 인천의 고유한 지역성을 찾아내기가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부문에 견줄 때 비교적 활기를 보이는 지역사회의 도서관활동은 충분히 우리들의 눈길을 끌 만하다.

인천지역 16개 아파트단지 순회

현재 인천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모두 7개소로 대충 한 환당 하나 꼴인 셈이다. 이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근처의 인천직할시중앙도서관(관장 강동원)이다. 지난 1983년 개관해 현재 1천5백여석 7만5천여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이 중앙도서관은 인천지역에선 유일하게 1984년부터 이동도서관을 운영,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한데, 기존의 도서관이 사실상 학생들의 공부방화한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이동도서관 운영의 의의는 실로 크다. 보유했던 실체적인 이용이란 측면에서 인천중앙도서관 이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브나로드운동'을 이끄는 책문화 전담의 최일선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형버스 한대를 개조해 인천의 인구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운영되는 이 이동도서관의 주무부서는 열람과 관외봉사계로, 팀장인 손창계장 이하 모두 5명의 직원들이 온전히 이 일에만 매달려 있다. 매일 아침 9시경이면 사무실 당번 한명을 제외한 명의 직원이 이동도서관 버스를 타고 그날의 순회지역으로 나가는데, 오전과 오후를 나눠 하루에 2개 지역씩을 돈다. 4년을 단위로 교체하게 돼 있는 이동도서관 순회지역은 현재 만수동 주공아파트, 부평 동아아파트, 산곡동 우성아파트, 주안 영남아파트

등 모두 16개 지역으로 월요일과 토요일의 경우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르는 제반 자체 정비업무와 잔부처리를 하느라 차가 나가지 않으니 2주에 한번씩 해당지역을 들르게 되는 셈이다.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거주지 주민등록과 도장을 지참하여 회원으로 등록하면 매번 4권 이내로 무료로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현재 등록회원수 5천을 헤아리며 월간 9천여권 3만2천여권씩 대출될 정도로 호응도와 이용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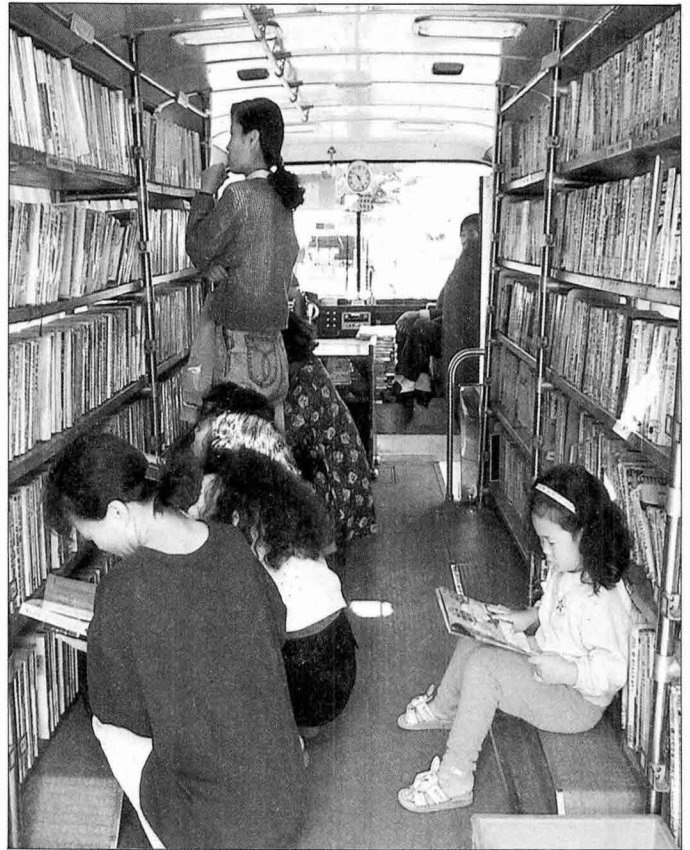
일개 지역만을 따지면, 하루에 보통 50~70명의 이용자가 2백~3백권의 책을 대출해 가며, 신규등록도 많은 경우 4~5명씩이나 된다. 심지어는 이동도서관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동네에는 오지 않느냐"는 '항의성 부탁'을 받기도 한다는데, "이용율을 고려해 인구밀집지역을 우선해서 순회하다보니 단독주택 등 지역사회의 구성구석까지 두루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 전영계장의 말이다.

이동도서관에 한번씩 실고 나가는 장서는 대략 2천5백권 정도로, 도서관 전체 장서의 30%를 차지하는 관외봉사계 보유장서 2만5천권을 중심으로 수시로 목록을 교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신간은 두달에 한번꼴로 추가돼, 1년이면 6천권 정도의 새로운 목록이 투입되는데, 그 80%가 문학서들이다. 이동도서관 이용자의 95%가 주부들이며, 그밖에 어린이, 노인, 인근 상가의 자영업자들이라 아무래도 무슨 '차원높은' 책들보다는 건전한 여가생활에 유익한 쉽고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들 찾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진지한 독서의 경향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동도서관과 함께 인천중앙도서관 관외봉사계에서는 따로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이 순회문고는 말하자면 이동의 주기가 장기간이란 점이 특징. 아직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지 않은 관내 신설학교를 비롯해, 기업체와 구치소, 이동도서관이 가지 못하는 아파트단지 등 현재 5개소에 5백~6백권씩의 장서를 최근 4년까지 장기간 대여해 주고 있다.

예산증액 및 인력충원 절실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도와 이용율이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인천중앙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에는 나름의 고충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금



인천지역 제일의 인구밀집지역인 만수동 주공아파트단지에서 운영중인 이동도서관

德鎭 열람과장의 말대로 "성인 남자들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싶고, 일반주책가의 동사무소 앞 같은 데도 딱하니 이동도서관 버스를 대 놓고 싶지만 거기 동원되고 투입돼야 할 인력과 재원을 생각하면 그저 생각만으로 그칠 뿐"이라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또, 장서확보만 해도 이동도서관의 특성상 대출빈도가 잦은 '인기품목'의 경우 종당 10권정도는 비치돼야 이용자들의 요구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고작 종당 2권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크게 보면, 가령 인천지역의 7개 공공도서관이 저마다 한대씩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각각 한 톱씩을 맡는다고 하면 어느정도까지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하나 있는 이동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딱 만족스러운 편이 못된다.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전년도 대비 실질적 예산증액"이 일선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최소한의 바람이라고 말하는 전영계장은 "요청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야 나름의 창의성을 갖고 새로운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

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실화' 운운은 사실상 헛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천중앙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팀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다. 이미 지난 여름에 겪은 무더위와 곧 단추를 거울의 추위를 생각하면 잠시 끔찍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런 고생쯤이야 의례 겪는 연례행사로 치부해버린 지 오래다.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밖'에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책을 읽는 선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이 인천중앙도서관 이동도서관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강철주 기자